

“테마가 있어야 뜬다”

우리는선우·강남 봉은사, 색다른 신행 프로그램 눈길



(사)우리는선우의 '빛깔있는 법회'와 서울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우리는선우의 요가법회 모습.

(사)우리는선우의 '빛깔 있는 법회'와 서울 삼성동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가 '뭔가 다른' 법회와 순례를 원하는 불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의 '빛깔 있는 법회'는 '우리 시대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내걸고 매일 한차례 열린다. 각 분야에서 명망을 얻고 있으면서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재가불자들을 법사로 초청하는 형태다.

대한태극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호 박사를 초청해 6월 25일 연 첫 '빛깔 있는 법회'에는 100여명이 함께 했다. 평소 30~40명 수준의 참석인원을 고려해볼 때 폭발적인 반응. 7월과 8월에는 김진태 인천 지검 검사와 요기나 과은구체(현안 여여요가아쉬람)로부터 '그들의 삶과 불교'를 들었다.

'빛깔 있는 법회'를 들여다보면 준비하는 이들과 법회참석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밝혀진다. 평범한 법회가 아닌 색다른법회도 신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키워드' 법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선우는 이같은 고민을 '빛깔 있는 법회'에 반영하고자 했다.

성태웅 우리는선우 이사장(건국대 교수)은 "달라진 법회를 통해 재가불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신행문화를 바꾸어 나가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봉은사(주지 원혜)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 취지도

주제를 담아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는데 있다. 의례적으로 행해오던 성지순례가 단순한 여행 정도로 치부될 만큼 본래 의미가 약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그런 의미에서 순례지에서의 기도를 가미시킨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는 적격이었다.

올해 봉은사는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주요 기도처로 꼽히는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강화 보문사를 다녀왔고, 9월과 10월 각각 설악산 봉정암과

팔공산 갖바위를 순례할 예정이다. 봉은사가 7월 이후 순례지를 기도처로 선택한 이유는 수능 100일기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봉은사는 동참불자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도하는 순례로 구성된 점도 순례자들의 호응이 높았는데 보탬이 됐다.

우리는선우의 '빛깔 있는 법회'와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는 일률적인 식순과 똑같은 방식, 내용을 반복하는 '따분한' 불교의례와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테마를 설정해 '뭔가 다른' 법회·성지순례로 바꾼 점이 주요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선우의 '빛깔 있는 법회'와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는선우 '빛깔있는 법회' '불교 생활화' 실천 재가불자 초청 인기 강남 봉은사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 단순 여행 탈피, 기도 가미시켜 차별화

20년 맞은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 9월 23일 의왕 용화사에서 기념법회

이달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회장 양진중, 이하 국불회)가 9월 23일 의왕 용화사에서 기념법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1980년대 중반 직장불교의 태동에 힘을 보탠 국불회는 회원 25명 전원이 박사로 구성된 지식인불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국불회는 참선모임을 운영하는 등 수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직장단체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100일 1만배 운동을 받기해 10여명의 회원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 수행을 회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불회는 안양시청, 경찰서, 교도소, 운 불련 안양지역회 등 지역 직장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기념법회에 이어 열리는 세미나의 발제도 이웃 단체회원들이 맡을 예정이다.

국불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국불회와 직장불교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할 계획이다.

박병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님

조경미

수화봉사모임 '심어회' 부회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손은 마술사의 그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손에서는 때론 말이, 때론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 아름다운 손의 주인공은 바로 수화통역사 조경미(43·수원심·사진) 씨. 듣지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되고 귀가 되어 불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창단된 수화 봉사 모임 심어회(회장 김해순) 조경미 부회장의 아름다운 손짓은 청각장애인들이 예전 보여지는 '소리'다.

1997년 수화합창단을 시작으로 1998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을 졸업하며 심어회를 창립해 본격적으로 수화 통역 봉사활동을 시작한 조 부회장은 부산장애인협회에서 수화통역사로 활동하며 수화 교육 강의로도 맡고 있는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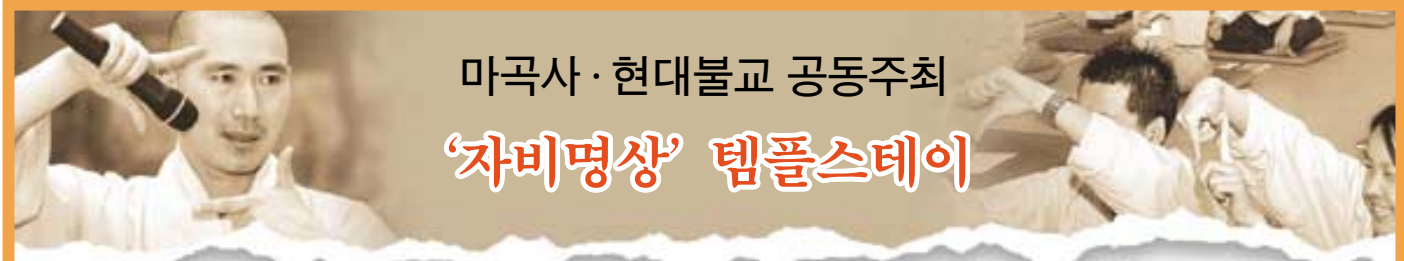
'청각장애인들이 길을 묻으면 길을 알려주려고' 우연히 배운 수화였다. 조 부회장의 소박한 바람은 더 크게 이뤄졌다. 1999년 농아불자회를 창립하고 법회 통역과 각종 불교행사에서 수화 통역을 하며 불법을 듣는 청각장애인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사로 시작됐던 수화는 이제 생활이 되어 버렸다.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하다보니 그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야 한다. 때론 새벽 한 두시에 경찰서에 달려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겸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청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야 그들의 뜻을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법문을 수화로 통역 할 때도 어려운 한자용어가 많고 불교수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힘들어요. 그러나 욕심내지 않아요. 불법과 청각장애인을 이어주는 환한 통로가 될 수 있길 늘 기도할 뿐이죠."

심어회와 조 부회장의 바람은 늘 한결같다. 청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법회와 복지 프로그램을 열고 장애가 없이 태어난 자녀들의 영유아기 교육도 챙겨주고 싶다. 그래서 조 부회장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아름다운 손짓은 날로 비껴지고 있다.

전미희 기자 micheon@buddhapia.com



마곡사·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둘째날 진행된 '감사명상'.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합장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몸과 마음을 쉬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10차 취업대기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4일 마곡사에서 취업대기자를 위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고 개선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20대 젊은 청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마곡사(주지 진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자신을 감추려 말고 세상의 주인공 되세요

미래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한바탕 내린 마곡사. 태화산 정사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18명의 참가자들이 하나 둘 마곡사 연화당에 모였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대학생, 아버지와 함께 온 학생, 대학원에 다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참가 사연도 제각각이다.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묘연 스님의 설명에 따라 참가자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 만난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이 속스럽지만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낯설지 않다.

저녁 공양 후, 이번에는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서로에게 털어 놓는다. 몇 년 후 사회 현장에서 뛰고 있을 자신들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온 강병식(29)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통역사가 되겠다고 한다. 박지연(28·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씨는 대학원 공부를 계속해 예방수의학의 권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기 중임에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박

지희(21·전북 전주시 중앙동)씨는 건축학 전공을 살려 건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건설회사를 만들어 집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당찬 발표에 박수가 쏟아졌다.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은

둘째날 오전 9시부터 마가 스님의 지도로 '감사 명상'이 시작됐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들을 100가지씩 적어본다. 나의 뿌리와 줄기, 가지가 되어 준 존재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작은 종이 하나에 셀 수 없는 존재들이 가득했다. 하나의 그림, 인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이예지(22·안양시 평촌동)씨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 어느 것 하나 나의 관련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진(21·전주시 서신동)씨도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작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반성한다.

내안의 장애요소는 무엇일까

감사 명상에 이어 자신의 어떤 요소가 사

회진출을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그 장애요소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마곡사 경내로 흩어졌다. 의자에도 앉아 보고 극락교 다리 위에 서서 생각도 해보지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김대호(27·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밝혔다.

장재혁(27·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씨도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나가지 못하는 것이 고쳐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현범(30·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씨는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반성했다.

마가 스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장애요소는 있다"면서도 "단점을 감추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맨발 산행과 죽은 명상, 화 다스리는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부처님 되기' 시간. '나의 존귀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순서다.

연화당에 놓인 세 개의 법상에 3명이 오르고 다른 참가자들이 정성을 다해 삼배를 올린다.

"내가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모든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동시에 "나도 사회에서 나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본다.

조귀영(21·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를 위해 땀 흘릴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했다"며 "반드시 중국의 땅을 모두 축약하는 기사가 되겠다"고 기업을 도했다.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다는 세상. 그래서 내 안에서 문제들을 찾기 위해 마곡사에 왔다. 회향의 순간, 마음의 집이 훨씬 가벼워졌다.

2박 3일간의 다짐을 담아 9월 14일, 18명의 취업대기자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다시 마곡사를 나섰다.

글·사진/마곡사=유철주 기자



손에 손을 잡고 명상에 빠져본다. 도반이 있기에 청춘들에게 미래는 두렵지 않다.